

## 니-쇠 復興의 現代的 意義 (二)

安浩相

病든 그의 心身은 氣候의 影響을 極度로 感覺하는 까닭에 日氣가 더운 夏節에는 스위스의 인가-던과 심쓰마리아에서 療養하였고, 치운 겨울에는 자리를 옮겨 남국의 伊太利를 찾게 되었다. 괴-베라와 재우와 루-타와 스트레짜 또는 □과 베네딕회 等地로 轉居하여 健康을 도우는 一便, 그의 作品에도 큰 影響을 끼치었스니, 實로 一千八百七十九年 卽 □을 □하든 해로부터 一八八八 約 十年生活은 或南或北이였으며, 그의 偉大한 作品 「지나친 人間」·「□紅」·「喜悅의 科學」·「차라투스트라」·「善과 惡의 彼岸」·「道德의 系譜」等은 此 流浪時에 製作된 것이었다.

一八八〇年 以後 그의 私生涯는 自然의 風景 속에 자라게 되었스나, 一個의 冊床이나 그를 裝飾한 □火의 □□이 그에게 要求되지 안혔다. 自然 속에서 自然을 向해 孤寂한 步□를 옮길적마다 人生에 對한 또한 宇宙와 自然에 對한 豊富한 感想의 옷을 입고 그 靈을 優梁하였든 것이다. 그는 恒常 山峰이나 海邊, 巖下나 松間 또는 길을 가면서 그의 붓은 움직이고 잇섯나니 眞實로 저 「실바풀라나」의 湖畔가에 아침 햇빛이나, 밤의 月光을 짝하지 안혔든들, 그의 主著의 하나인 「차라투스트라」는 그만한 偉大性을 띠었슬지 疑問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가티 自然에 □家하여, □□된 靈魂의 우습을 기대하든 니-쇠는 오랜 悩을 □□하지 못하고 一八八九年 正月 초하룻날 精神病의 發作으로 길바닥에 엎어져 잇는 것이 그 집 主人에게 發見되었다. 當時 바셀市 精神病院에 入院하였다가 다시 예나市 精神病院으로 移院하여 一年을 治療하였스나, 若干의 差度가 그의 肉體에 잇섯슬 뿐이오, 그의 精神과 靈은 다시 世上을 向해 健全한 說教를 내어놓지 못한 채, 남은 餘生을 自己 母親과 누님(엘시베트·필스테르·니쇠)에게 依託하였다가 一九〇〇年 八月 二十五日, 享年, 五十五歲를 一期로 永遠이 世上에서 가버렸다. 그런데 最近에 와서 니-쇠 研究가 世界的으로 漸漸 高潮되고 잇슴은 □知의 事實이여니와 特히 그가 現代에 如何한 意義를 提供하고 잇는가? 니-쇠의 神秘的 天才的 筆致는 그를 알고져 하는 사람에게 無限한 愛着心과 研究熱을 일으키게 하나,

단지 그것 만으로서 現代的 意義를 가졌다 할 수 업는 것이다. 그의 學說 中 現代的 意義를 가지게 하는 것은 第一에 잇서 그의 文化觀이다. 니-쇠는 現代科學은 참된 文化를 助長하지 못하는 反面에 듣이어 沈痛케 한다고 痛歎 하얏다. 文化는 決斷코 □□의 多量에서 存立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藝術的 向上에서만 存立할 수 잇는 것임으로 偉大한 文化는 悟性的 科學家의 役割에서 生産되는 것이 아니라, □□的이며 아올너 意志的 天才의 創造에서만 實現될 것이라 하얏다.

第二는 그의 價値觀이다.

現代哲學에서 뿐 아니라, 社會科學에서까지 가장 重要시하며 中心問題로 되어 잇는 「價値」問題를 獨特한 方法으로 究明하려 하얏다. 「니-쇠의 價値論이 緻密한 哲學的인가 아닌가는 別問題로 하고」

第三으로 그의 「生」에 對한 解釋이다. 人生은 恒常 不安에 싸헛스며 危機에 處헛슴으로 「生」은 무엇을 克服하는 데서만 成立하는 것이라 하얏다. 如斯한 니-쇠의 根本思想이 現代에 莫大한 影響을 주는 一便, 現代人으로서 그의 研究에 深奧한 刺戟을 주게 하는 큰 原因이 되어잇는 것이다. 以下 又의 文化觀과, 價値觀, 人生觀을 順序的으로 簡單히 洞察해보고져 한다.